

동물의 고통과 식물의 감각*

맹 주 만

주제분류 윤리학, 응용윤리, 동물윤리

주요어 동물, 식물, 의식, 고통, 감각, 자의식적, 의식적, 비의식적

요약문

피터 싱어는 공리주의자로서 고통 지각의 유무를 한 존재에 대한 도덕적 고려 가능성의 조건으로 제시하면서 동시에 어떤 존재가 고통을 느낄 수 있기 위해서는 그 존재는 의식적 존재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싱어는 어떤 존재들 간의 고통 지각의 정도에 따라 필요할 경우 그들을 차등적으로 대우하는 것도 도덕적 정당성을 갖는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근거와 주장으로부터 싱어는, 비록 그 스스로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믿고 있지만, 만일 식물도 고통을 지각할 수 있는 존재로 밝혀질 경우, 그녀 또한 도덕적 존재이며, 따라서 도덕적으로 대우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만일 식물의 고통 지각의 양이 인간과 동물의 그것과 견주어 현저히 작다면 이로부터 여전히 채식이 육식보다 더 도덕적이라고 주장한다.

이 글은 이 같은 싱어의 논변이 타당하기 위해서는 싱어는 선결적으로 다음과 같은 필자의 반박에 설득력 있는 답변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어떤 존재가 의식적 존재임은 그 존재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존재임을 의미한다는 싱어의 논변에서 한 존재가 의식적 존재이면서 그 존재의 고통 감각 이외의 다른 감각을 도덕적 고려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은, 고통에 대한 임의적인 우선적 고려를 제외하면, 어떤 경우에도 정당성을 지니지 못한다. 비록 식물이 동물이 느끼는 것과 같은 고통은 느끼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곧 식물이 의식적 존재가 아니라는 것마저 배제하지는 못하며, 게다가 식물이 어떤 감각을 갖고 있다면, 그들 역시 의식적 존재라고 주장하는 것이 보다 더 타당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 이 논문은 2008년도 중앙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1. 동물의 고통과 의식

동물의 의식에 대한 연구는 많은 철학적 난제들이 그렇듯이 철학과 과학이 함께 풀어가야 할 대표적인 문제들에 속한다. 이는 데카르트 시대에도 그랬듯이 후기 다윈주의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에도 여전히 참이다. 오랜 동안 철학의 영역에서 동물의 본성에 관한 연구는 지엽적인 관심사에 불과했었지만, 동물을 포함한 생물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한 역사적 계기로는 아마도 진화론의 등장을 정식으로 알린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The Origin of Species*, 1859)의 출간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동물의 의식』¹⁾과 같은 저서의 이름이 보여주듯이 역사상 오늘날만큼 인간 아닌 동물(nonhuman animal)을 다른 이유가 아닌 오로지 동물이라는 이유 때문에 동물 존재가 이처럼 관심의 대상이 되었던 적은 없었다. 특히 이러한 분위기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한 인물로 동물해방론자로 널리 알려진 오스트레일리아 철학자 피터 싱어(Peter Singer)를 들 수 있다. 그는 만일 어떤 존재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감응력(sentience)을 지닌 동물이라면, 그 존재는 도덕적 존재로서 인간과 평등한 도덕적 고려의 대상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도덕적 지위를 갖는 동물에 대한 일체의 비윤리적 행위들의 금지를 촉구했으며, 그 목록에 포함되는 동물 실험과 동물 사육 및 육식 등을 비롯해서 인간이 오래도록 무반성적으로 당연시 해온 익숙한 편견들을 강도 높게 비판한다. 특히 그는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가하는 일체의 행동을 비난하면서 채식이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윤리적인 음식문화임을 강조한다. 싱어에게 육식은 비윤리적이며, 윤리적인 음식습관은 채식이다. 이 같은 자신의 윤리적 채식주의를 옹호하기 위해 싱어는 동물중심적(zoocentric) 또는 고통 중심의 생명관을 옹호하는 일련의 논의들을 전개했다.

1) Daisie and Michael Radner, *Animal Consciousness*, New York: Prometheus Books, 1996, p. 117.

그는 우선 생명의 범주를 크게 세 영역으로 나눈다. 우리가 인격체라 부르는 존재인 의식이 있으면서 동시에 자의식을 갖는 존재의 생명, 의식은 있지만 비자의식적인 존재의 생명, 그리고 비의식적(nonconscious) 존재의 생명이 그것이다. 여기서 자의식적 존재는 당연히 의식적 존재이지만 그 역은 아니다. 그리고 특히 싱어가 의식적 존재와 비의식적 존재를 가르는 경계는 고통(감응력) 지각의 유무이다. 또한 싱어에게 이 고통의 유무는 어떤 존재가 도덕적 존재이며, 따라서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되는지를 결정하는 경계와 기준이 된다. 그가 전통적인 육식중심의 음식문화의 비윤리성을 지적하고, 식습관을 육식에서 채식으로 바꿀 것을 강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싱어의 채식 옹호 논변의 핵심 논거는 고통(감응력)을 느낄 수 있는 존재의 기본 조건인 의식에 있다. 즉, 넓은 의미에서 기본적으로 의식적 존재이어야 고통을 느낄 수 있다고 간주하고,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동물은 의식적 존재이자 동시에 도덕적 존재이기 때문에 육식은 비도덕적이며, 반면 식물은 고통을 느낄 수 없는 비의식적 존재이기 때문에 도덕적 존재가 아니며, 따라서 채식은 윤리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식생활이라고 주장한다.²⁾ 간단히 말해서 고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은 곧 그것이 의식이 있다는, 즉 의식적 존재임을 증명하는 것이 된다. 그러면 싱어가 주장하듯이 동물이 아닌 식물은 정말로 고통을 느낄 수 없는가? 또는 비의식적 존재인가? 만일 어떤 존재가 의식적 존재라면, 그 존재는 반드시 인간 혹은 동물이 느끼는, 강도와 정도는 다르더라도, 고통 같은 것을 받

2) 이와 관련한 싱어의 윤리적 채식주의 옹호론에 대한 전반적인 고찰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맹주만, 「피터 싱어와 윤리적 채식주의」, <철학탐구> 22집, 중앙철학연구소, 2007. 또한 필자의 주장에 대한 반론에 대해서는 최훈, 「맹주만 교수는 피터 싱어의 윤리적 채식주의를 성공적으로 비판했는가?」, <철학탐구> 25집, 중앙철학연구소, 2009. 이 두 글을 통해 싱어의 윤리적 채식주의의 면모와 대강을 살펴볼 수 있다. 필자의 이 글은 최훈 교수의 반론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 이 글에서 다루려는 주제가 최훈 교수가 반박했던 필자의 논문의 주제와는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최훈 교수의 반박에 대해서는 다른 기회에 다른 지면을 통해서 답변할 것이다.

드시 느껴야 하는가? 의식적 존재이면서 고통이 아닌 다른 무엇을 느끼는 경우는 어떠한가?

육식에서 채식으로의 식습관의 변화를 주창하는 싱어의 채식 옹호 논변은 식물에게서는 고통을 시사하는 행위를 발견할 수 없다는, 특히 식물은 인간 및 동물과 달리 중앙집중적으로 조직된 신경체계를 갖고 있지 않다는 과학적 믿음에 의거하고 있다.³⁾ 그렇다면 한 존재에게 고통이란 무엇이며, 또 고통의 조건으로서의 의식이란 무엇인가? 식물은 동물과 같은 조직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필자가 보기에, 이처럼 도덕적 존재 구분의 경계를 의식과 비의식의 구분, 그리고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감응력의 유무에다 두고 있는 싱어의 논거는 상당히 제한적이며 임의적이다. 이를 논박하려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하지만 필자가 의도하는 것은 싱어의 고통에 의거한 채식 옹호 논변이 틀렸기 때문에 육식은 정당하다는 것을 옹호하려는데 있지 않다. 다만 육식과 채식의 도덕적 차이를 고통(감응력)에 의거해서 옹호하려는 싱어의 논변이 갖는 임의성을 지적함으로써 그의 주장이 정당화될 수 없음을 보이고자 한다.⁴⁾

2. 의식적 존재와 비의식적 존재

우선 육식의 비윤리성을 정당화하는 논거가 되었던 동물의 의식과 고통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서 앞서 제시한 싱어의 생명 분류법에 따라 의식적 존재와 비의식적 존재의 특성을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싱어에 따르면, 먼저 전자에는 의식이 있으면서 동시에 자의식적인 존재가 포함된다. 이에 해당하는 전형적인 경우가 인간이다. 인간의 생명을 신성한

3) 피터 싱어, 『실천 윤리학』, 황경식·김성동 옮김, 철학과 현실사, 1997, p. 97.

4) 비록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고 있지만, 필자는 인간의 식습관은 그것이 육식이든 채식이든 그 이상의 것에 맞닿아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해서는 다른 자리에서 다루려 한다.

반열에 올려놓은 오랜 전통에 있어서 인간에게만 특별하게 부여하는 명칭으로 인격체(person)를 들 수 있다. 전통적 의미에서 인간과 인격체는 교환가능한 개념이다. 하지만 싱어는 인간이 인간 자신에 대해서 갖고 있는 편견, 이를테면 “생명의 존엄성 을 말하면 으레 그것이 인격체로서 “인간 생명의 존엄성 만을 생각하는 편견을 지적하면서 이처럼 “인간의 생명, 그리고 인간의 생명만이 신성불가침하다는 믿음 5)은 종차별주의의 한 형태이며, 따라서 이 같은 그릇된 믿음을 넘어서 당연히 인간이 아니면서도 인격체인 존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들 용어의 정확한 사용을 분명히 하려고 시도한다. 이를 위해 우선 싱어는 인간에 대한 가능한 개념 규정을 두 가지 방식으로 구별한다. 하나는 인간을 다른 종과 구별 해주면서 인간이 어떤 종에 속하는지를 나타내는 이른바 생물학적 의미를 갖는 “호모 사피엔스라는 종족의 구성원 (member of the species homo sapiens)이라는 말이며, 다른 하나는 인격체라는 말이다. 후자는, 싱어에 의하면, 개신교 신학자 플레처(Joseph Fletcher)가 제안한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특징적인 성질들, 즉 “인간성의 지표 (indicators of humanhood)—이 목록에는 자의식(self-awareness), 자기통제, 미래감, 과거감, 타인과 관계맺는 능력, 타인에 대한 관심, 의사소통, 호기심 등이 속하는데—를 총괄적으로 나타내 줄 수 있는 말로 사용된다. 싱어는 이 인격체라는 말의 현대적 의미로서 『옥스포드 사전』(Oxford Dictionary)이 정의하고 있는 ‘자의식적이거나 합리적인 존재’라는 의미규정을 받아들이며, 이것이 또한 로크가 정의한 인격체 개념, 즉 ‘이성과 반성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유하는 지성적 존재로서 자신을 자신으로, 즉 다른 시공간 상에서도 여전히 동일한 사유존재로 인식할 수 있는 존재’라는 의미를 간결하게 담아내고 있는 표현으로 간주한다.⁶⁾ 그런데 싱어는 다양한

5) Peter Singer, *Animal Liberation*, new revised edition, New York: Avon Books, 1990, p. 18.

6) Peter Singer, “What’s Wrong with Killing”, in *Writings on an Ethical Life*, New York: HarperCollins, 2000, pp. 127-128. (Source: Peter Singer, *Practical Eth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nd ed., 1993); 피터 싱어, 『실천 윤리학』, pp.

연구 결과를 인용하면서 이런 인격체에 해당하는 존재로는 인간 아닌 동물도 있다고 주장한다. 그 예로서 수신호를 배워 수화를 통해 자신을 인식하고 표현할 줄 아는 침팬지, 고릴라, 오랑우탄 등의 동물들을 들고 있다. 또 고래나 돌고래와 같이 큰 뇌를 가진 포유동물들도 합리적이고 자의식적인 존재로 판명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본다. 또 개와 고양이나 돼지 등을 비롯해 우리가 음식으로 이용하는 포유류도 인격체로 볼 수 있으리라 예상한다.⁷⁾ 이를 통해 싱어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인간중심적으로 생각해 온 가치, 인간 종족의 구성원들의 생명만이 특별한 가치가 있다고 하는 주장이 그릇된 신념에 기초하고 있다고 결론 내린다.

또 의식적 존재의 또 다른 부류에는 의식은 있지만 비자의식적인 존재가 포함된다. 싱어의 규정에 의하면, 의식적 존재(conscious beings)란 “인격체가 아닌, 즉 감응력이 있고 쾌락과 고통을 경험할 수 있지만 합리적이지도 자의식적이지도 않은 존재⁸⁾를 가리킨다. 싱어는 인간과 일부 동물을 제외한 많은 동물들이 이 범주에 속할 것이 거의 확실하며, 신생아와 약간의 정신적 장애인들도 이에 속한다고 본다. 그리고 의식이 있지만 인격체가 아닌 동물의 가장 명백한 경우로 물고기를 꼽는다. 물고기 역시 생명으로서의 가치를 갖는데, 그 가장 명백한 이유는 그 존재가 경험하는 의식적 존재로서의 고통과 쾌락이다.

그렇다면 이처럼 의식적인 존재, 즉 단지 감응력만 갖는 존재와 구별되는 합리적이고 자의식적인 존재의 생명에는 ‘특별한’ 가치가 있는가? 이에 대해서도 싱어는 일단은 긍정적인 결론에 도달한다. 통상 우리는 의식의 상태로서 죽음을 예견하거나 그 결과를 예상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인격체가 그렇지 않은 존재가 갖는 고통의 크기와 강도, 미래의 가능한 욕망의 기대감이나 좌절감에서 오는 불행의 정도보다 훨씬 클 수 있기 때문에 그 같은 인격체가 그렇지 않은 존재보다 특별한 가치를

114-116.

7) 피터 싱어, 『실천 윤리학』, pp. 142-151.

8) Peter Singer, “What’s Wrong with Killing”, p. 139.

갖는다고 생각한다. 싱어 역시 서로 다른 생명들의 가치에 대한 비교 문제를 제기하면서 비교를 가능케 하는 중립적인 근거를 찾아내기가 실질적인 차원에서는 매우 어렵다는 것을 인정한다. 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회적으로 싱어는 인격체의 생명이 단순히 감응력만을 갖는 존재의 생명 이상으로 특별한 가치를 가진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견해 네 가지, 즉 고전적 공리주의, 선호공리주의, 툴리의 “생명에의 권리(right to life), 자율성에 대한 존중 등에 기초한 논거들을 검토한 후에 다음과 같은 잠정적인 결론에 도달한다. 즉 살생이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전적 공리주의자의 관심, 희생자의 미래에 대한 욕망과 계획의 좌절에 대한 선호공리주의자의 관심, 자신을 일정시기에 걸쳐서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능력이 생명에 대한 권리의 필수조건이라는 논증, 그리고 자율성에 대한 존중 등과 같이 인격체의 생명을 특별히 보호해야 할 이유를 제시하고 있는 이 네 가지 견해 중 어느 것도 즉각적으로 거부할 수는 없다는 결론을 내린다.⁹⁾ 그러면서도 이 문제를 이론적으로라도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이기 위해 하나의 사고실험을 제시한다. 즉, 상상을 통해 실제로 한 번은 말이 되고, 한 번은 인간이 되고, 또는 다른 무엇이 되어 보는 식으로 정신적 경험을 해본 후에 이처럼 다양한 종류의 존재가 된다는 것이 어떠한 것과 같을까라는 상상적 재구성을 통해서 다양한 생명들의 가치를 위계적인 서열로 분류하는 것이 가능하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필연적으로 종족주의적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¹⁰⁾ 이와 같은 싱어의 주장에 의하면, “모든 존재의 생명은 생명이라는 점에서 모두가 중요하다. 는 의미가 곧 “모든 존재의 생명은 동등한(equal) 가치를 갖는다. ¹¹⁾는 것을 함의하는 것은 아니듯이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equal). 는 주장이 모든 동물을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므로 각각의 의식적 동물들의 고통에 대한 선호공리

9) Peter Singer, “What’s Wrong with Killing , p.138.

10) 피터 싱어, 『실천 윤리학』, pp. 136-137.

11) Peter Singer, “What’s Wrong with Killing , p.143.

주의적 차등 대우를 허용한다. 그런데 이런 구분법을 통해 싱어가 실제로 해방시켜준 대상은 주로 척추동물들이었으며, 이들은 지구상에 있는 생물종들 중 단 4% 그리고 개체수를 기준으로 1%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그 결과 싱어는 결국 그 이외의 감응력이 없거나 또는 없다고 추정되는 동물들이나 식물들 혹은 고통 지각에 대해서 모호한 존재들을 결국 저 극소수의 척추동물들을 위한 도구적 대상으로 계산해 버릴 수 있는 여지를 허용하게 된다.¹²⁾

끝으로 싱어는 비의식적 존재로서 나무나 풀과 같은 식물을 들고 있다. 이 같은 분류를 통해서 싱어는 도덕적 고려의 경계선을 의식적 존재에 한정한다. 즉, 의식의 유무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조건으로 간주하면서 이로부터 식물을 도덕적 고려의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싱어가 들고 있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사실적 이유로서 식물은 인간 및 동물과 달리 중앙집중적으로 조직된 신경체계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식물에게서는 고통을 시사하는 행위를 발견할 수 없다는, 즉 식물의 고통 감수 능력 여부에 대한 현재까지의 과학적 실험이 모종의 긍정적인 결과를 얻는데 실패했다는 이유에서 그 가능성을 물리치고 있으며, 또 다른 하나는 논리적 이유로서 설사 식물이 고통을 느낄 수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식물이 동물에 비해 고통을 덜 느낄 것이라는 것이다.¹³⁾ 물론 선호공리주의자로서 싱어는 존재들 간의 고통 지각의 상대적 정도에 기초하여 그들을 차등적으로 대우할 수 있으며, 이에 근거해서 음식 섭취가 필수인 인간의 채식을 여전히 옹호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하지만 만일 어떤 존재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존재라면 이미 그녀는 도

12) H. Rolston III, "Respect for Life: Counting what Singer Finds of no Account," in Jamieson, D. (ed.), *Singer and his critics*, pp. 247-248.

13) Peter Singer, *Animal Liberation*, pp. 235-236.; 『실천 윤리학』, p. 97. 싱어가 육식이 아닌 채식을 옹호하는 논리적 근거도 여기에 있다. 심지어 싱어는 설사 식물이 동물만큼이나 자극에 민감하다(sensitive) 하다고 가정하더라도 육식을 하는 사람들이 식물을 음식으로 이용하면서 채식주의자들보다 최소한 열 배는 더 식물을 파괴한다는 사실을 들면서 채식을 옹호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맹주만, 「피터 싱어와 윤리적 채식주의」, pp. 243-244.

덕적 존재로서의 지위를 갖기 때문에 고통을 많이 느끼느냐 덜 느끼느냐 하는 것은 상관이 없으며, 다른 생명체들과 상대적 비교에 따라 차등하게 대우해도 되는지 여부는 이차적인 문제이다. 그리고 이와 함께 싱어의 논변에는 우선적으로 고려하거나 선결적으로 해결해야 할 상호 연관된 두 가지 문제가 간과되고 있다. 즉, 고통의 유무 기준에 의거해서 식물도 도덕적 고려의 범위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과연 정당한지, 그리고 동물에게서 의식과 고통의 정확한 관계가 무엇인지가 그것이다. 이에 대한 충분한 해명 없이는 그의 논변은 정당성을 갖기 어렵다. 고통의 유무 자체가 도덕의 경계를 가르는 기준이 되려면 그것이 인간 혹은 (인간 아닌) 동물의 눈물이 그 같은 기준이 되는 것과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주는 것과 같은 정당화가 필요하다. 싱어가 당연히 하는 인간과 자의식적 동물들의 행동 특성의 유사성과 관련해서 오늘날 현재형으로 진행되고 있는 인간의 의식의 본성에 대한 주장들, 가령 의식의 지향성이나 언어적 의사소통 능력과 같은 인지적 능력과 관련한 연구들은 인간과 동물의 유사성을 확립하기 상당히 어려우며, 현재까지 이에 대해서 확정적인 기준을 확립하지 못하고 주장하는 것이 오히려 더 솔직한 고백이라 할 수 있다.¹⁴⁾ 그럼에도 싱어는 인간과 동물의 의식에 관한 연구 결과들을 단순히 몇 가지 행동학적 유사성에만 의거해서 승인하고, 또 이와 관련된 문

14) 가령, 원숭이들이 인간처럼 마음이론을 갖지 않음을 보여주는 예, 즉 원숭이들이 다른 원숭이들에게 신호를 보낼 때 그들의 발성은 신호자의 입장에서 수신자가 가지길 원하는 지식이 아니라 신호자 자신의 지식을 나타내는 것처럼 보인다. 또 자연 상태의 침팬지 군락에서 유인원들이 서로 의사소통을 할 때, 수신자의 심리상태를 고려한다는 증거는 거의 없다. 마찬가지로 많은 실험에도 불구하고 원숭이들의 의사소통 방식에서 그들이 위험을 잘 알고 있는 원숭이들보다 무지한 원숭이들에게 위험을 더 많이 알리려 하거나, 다른 원숭이들의 무지를 파악하고 이것을 변화시키려 하거나, 다른 원숭이들의 믿음을 교정하고 고치려고 시도하거나, 발성의 올바른 사용이나 반응을 가르치거나 할 목적으로 의사소통을 한다는 증거는 [아직까지] 전혀 없다. D. L. Cheney and R. M. Seyfarth, *How Monkeys See the World*,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0.; R. M. Seyfarth and D. L. Cheney, "Vocal Development in Vervet Monkeys," *Animal Behavior* 34:1640-58. 이에 대해서는 앤드루 브룩·돈 로스 편저, 『다니엘 데넷』, 석봉래 옮김, 몸과마음, 2002, pp. 190-193 참조.

제가 안고 있는 예상되는 난점들을 ‘고통’에 의지해서 손쉽게 탈출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어 보인다.

싱어가 윤리적 선택의 이론적 준거로 삼고 있는 벤담의 공리주의도 역시 이 점에 있어서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일찍이 동물의 지위에 대한 도덕적 고려를 주창한 그 역시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존재의 범위를 인간에서 동물에까지 확장했을 뿐 왜 고통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해명은 하려 들지 않았다. 그가 보여준 논거는 싱어의 견해와 유사하게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인간이 도덕적 존재라면 동물은 왜 동등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되는가? 라고 ‘감정에 호소하는 오류’에 편승하고 있을 뿐이다. 평등한 고려와 공정한 대우의 차이를 승인하더라도 벤담을 포함한 신벤담주의자(neo-Benthamite) 및 공리주의자들 역시 이 같은 오류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¹⁵⁾ 싱어와 유사하게 롤랜즈도 동물이 인간과 현저하게 구별되는 정신적 차이를 지능에서 찾으려 하면서, 하지만 그것으로는 인간과 동물의 도덕적 차이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와 함께 그는 전통적으로 인간과 동물의 차이를 생각하고 느낄 수 있는 능력에서 찾았던 데카르트와 그 학파의 믿음을 비난하면서 동물 역시 이러한 능력, 특히 동물에게 의식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분명한 근거로서 동물이 고통이나 아픔을 느낄 수 있음을 다양한 근거와 사례를 들어 보여주고 있다.¹⁶⁾ 그의 주장에 따르면, 동물은 고통을 유발하는 통증, 공포, 불안과 같은 감정, 그리고 만족감을 안겨주는 쾌락, 즐거움, 행복과 같은 감정을 느낄 수 있다. 나아가 고통과 만족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욕망과 선호의 감정 또한 가질 수 있으며, 따라서 인간과 동물을 도덕적으로 차별할 어떠한 정당한 근거나 이유도 존재하지 않는다.

15) 벤담(J. Bentham)의 이러한 선언적 진술에 대해서는 그의 책 *Introduction to the Principles of Morals and Legislation*, ed. by J. H. Burns and H. L. A. Hart, London and New York: Methuen, 1970, ch. 17, p 283.

16) 마크 롤랜즈, 『동물의 역습』, 윤영삼 옮김, 달팽이출판, 2004. pp. 20-57.

3. 의식과 고통

어떤 존재가 고통을 느낄 수 있다면, 그 존재는 의식적 존재이다. 물론 고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은 통증 같은 것 이외에도 즐거움, 불안, 공포 등과 같은 또 다른 감정 상태들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고통이 중요한 것은 어떤 존재에게 고통을 준다는 것이 최소한 그 존재에게 해를 입히는 것이어서, 통상 우리의 도덕적 직관에 따르면, 그것은 해서는 안 되는 비도덕적 행위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상식은 일정 부분 이를 지지한다. 그러나 여전히 그 상식에는 또 인간을 동물과 도덕적으로 구분하는 의식도 상존한다. 이런 편차에 대한 냉정한 이해를 위해서는 고통의 의미를 좀 더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싱어에 의하면, “고통은 의식의 상태, 즉 ‘정신적 사건’이며, 그것은 그 자체로 관찰될 수 없지만, 그럼에도 고통이란 우리가 느끼는 그 무엇이며, 우리는 그것을 다양한 외부적인 징후들로부터 추론할 수 있을 뿐이다. 17) 심지어 뇌의 활동을 다양한 방식의 실험을 통해 실험하는 과학자의 기록도 고통 자체에 대한 관찰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고통의 존재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싱어와 비슷하게 롤랜드도 고통을 통증이나 공포, 불안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하는데, 이 중에서 특히 통증에 더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사실상 내가 통증을 느낀다고 분명하게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방법은 없다. 고 하면서도 내가 통증을 느끼듯 동물들도 고통(통증)을 느낀다는 사실을 강하게 암시하는 근거 내지는 증거로서 “행동학적 증거, 생리학적(해부학적 및 심리학적) 증거, 진화론적 증거 와 같은 “세 가지 유형의 증거 를 들어 보인다.18) 그 대강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행동학적 증거로는 사람들 혹은 나는 불 속에 손을 넣는 행동을 피하려는 것처럼 통증을 일으킨다고 여기는 것을 의도적으로 피하거나 벗어나려는 행동을 취한다. 또 이 같은 시도

17) Peter Singer, *Animal Liberation*, p. 10.

18) 마크 롤랜드, 『동물의 역습』, pp. 24-31.

가 실패했을 경우 소리를 지르거나 강한 불쾌감을 표현하는 전형적인 행동을 취한다. 또한 불행히도 통증을 유발하는 상처를 입게 되면 빠른 치료를 위해 다친 부분을 최대한 사용하려 하지 않는 행동을 취한다. 그런데 동물들도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행동을 취한다. 다음, 해부학적, 심리학적인 증거로서 차가 내 발을 밟고 지나가거나 내가 고양이 발을 밟고 지나갔을 때 취하는 반응행동에서 우리가 나(인간)의 몸 속 신경메커니즘의 작동은 통증을 수반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듯이, 인간과 비슷한 신경메커니즘을 갖고 있는 고양이와 같은 포유동물들을 비롯해 새들, 그리고 모든 척추동물들에게도 인간과 유사한 통증 현상이 나타난다고 추론할 수 있다. 특히 몸이 스스로 생산해서 큰 부상에서 오는 통증을 누그러뜨리는 작용을 하는 생존메커니즘의 일종인 아펜제제(엔돌핀)가 인간만이 아니라 모든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 어류, 지렁이나 벌레 같은 일부 무척추동물의 몸속에서 발견되었다는 것은 동물들도 인간처럼 통증을 느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근거라 할 수 있다. 또한 마취제나 진통제와 같은 인공 통증제어 물질에 모든 척추동물들과 일부 무척추동물들이 비슷한 방식으로 반응하는데, 이는 인간만이 아니라 그들도 통증을 느낀다는 것을 보여준다. 끝으로, 진화론적 증거로서 공통의 조상을 지닌 인간과 원숭이, 침팬지를 비롯한 유인원들이 느끼는 통증의 진화론적 역사를 해석한다. 인간은 고통을 느끼는 능력을 갖추으로써 유해자극을 피하거나 벗어나는데, 그렇지 않았다면 인간이 진화의 역사에서 그토록 오래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며, 동물의 통증 역시 같은 기능의 능력이기 때문에 생존할 수 있었다.

그러나 상술한 바와 같은 싱어나 롤랜즈의 견해가 아니더라도 인간과 동물을 완전히 다른 차원의 존재로 구분하고, “인간만이 사고를 수행하는 마음(또는 정신)을 소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별하다. 거나, 동물은 마음 또는 의식이 없는 존재이기에 “마음이 없는 존재는 느끼지 못한다. 19)고 주장했던 데카르트적 전통을 제외하면 동물이 고통을 느끼지 못

19) 마크 롤랜즈, 『동물의 역습』, p. 20.

한다고 보았던 역사는 드물다. 의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서 영혼의 문제를 다루었던 아리스토텔레스 역시 그의 『영혼에 관하여』(*De Anima*) 그리고 『니코마코스 윤리학』의 일부에서²⁰⁾ 싱어와 유사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영혼을 “생명을 잠재적으로 가지는 자연적 신체의 제일 현실태²¹⁾ 또는 “기관들을 가지는 자연적 신체의 제일 현실태²²⁾로 정의하는데, 이러한 영혼을 가진 생물들을 크게 식물, 비지성적인 동물, 지성적인 동물(인간) 세 종류로 구분하며, 다시 그들이 갖고 있는 능력을 모두 영양섭취능력, 감각능력, 욕구능력, 장소운동능력, 사고능력의 다섯 가지로 구분한다.²³⁾ 이에 따르면 지성적 동물로서의 인간은 이 모든 능력을 가지며, 이 중에서도 특별히 인간만이 갖고 있는 것이 사고능력이다. 반면 비지성적 동물들은 이 사고능력을 제외한 능력들 중에 고착 동물은 영양섭취능력, 감각능력, 욕구능력을 가지며, 장소이동 동물은 이밖에 장소운동능력도 갖는다. 반면 식물은 기관들을 가진 영혼으로서 생명체이면서도 영양섭취능력만을 갖는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식물은 “영양섭취를 할 수 있는 한 성장하고 생존하며, “상반된 방향의 운동성을 보여주는 성장과 쇠퇴와 같은 생명의 원리를 내부에 지니고 있는²⁴⁾ 영혼을 가진 존재이다. 하지만 그가 고통과 관련해서 동물에 대해서 갖고 있는 견해를 유추해보면 그 역시 싱어처럼 의식적 존재의 범위를 동물까지로 한정한다고 할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동물들은 어떤 것들은 오감을, 또 어떤 것들은 그 일부를, 또 어떤 것들은 다른 감각들을 갖기 위한 기본 조건인 촉각 하나만을 갖는다. 그리고 이 같은 감각(aisthesis) 내지는 감각작용은 그 결과인 감각지각(aisthemata)들 중의 하나인 고통지각의 필수 조건이며,

20) Aristoteles, *The Nicomachean Ethics*, Bk. I, Ch. 1, 1097b-1098a. (Translated and edited by Roger Crisp, Cambridge University 2000.)

21) Aristoteles, *De Anima*, 412a. (번역 인용은 유원기 역주, 『영혼에 관하여』(공리출판, 2001)에 따랐다. 그리고 인용 쪽수는 아리스토텔레스 저작 표기의 관례에 따랐다.)

22) Aristoteles, *De Anima*, 412b.

23) Aristoteles, *De Anima*, 413a-b, 414a-415a.

24) Aristoteles, *De Anima*, 413a.

따라서 감각지각을 가지면 욕구능력을 갖게 되고, 욕구능력을 가지면 크든 작든 고통과 쾌락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식물은 영양섭취능력만을 갖기에 고통지각은 갖지 못한다. 실제로 싱어처럼 아리스토텔레스는 동물과 식물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으로 감각능력을 들고 있는데, 이 감각능력을 즐거움과 고통뿐만 아니라 또한 욕구(욕망, 갈망, 희망)를 느낄 수 있는 가능 조건으로 보고 있다.²⁵⁾ 그렇다면 식물은 싱어나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듯 과연 의식 또는 감각을 갖지 않는가? 의식을 갖는다는 것과 감각을 갖는다는 것은 동일한 의미인가? 아니면 또는 하나는 다른 하나를 갖기 위한 필연적 조건인가?

4. 의식과 감각

싱어의 주장을 비롯한 고통 옹호 논변들의 핵심은 의식의 있음을 감각능력을 갖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으로 보고 있으며, 또한 감각능력의 있음을 고통 지각의 가능 조건으로 삼고 있는데, 아리스토텔레스 역시 유사한 견해를 갖고 있다. 그에게 감각능력은 또한 욕구능력을 갖기 위한 조건이며, 이 욕구로 말미암아 고통이나 쾌락을 느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의식의 본성을 어떻게 해명하고 규정할 것인가의 역사는 서양철학의 역사와 궤를 같이 하는 가장 까다로운 철학적 문제로 알려져 있다. 오늘날까지 의식과 마음(정신, 영혼)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이해와 성격 규정이 있어 왔으며, 데카르트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한 로크가 “의식을 ‘인간의 정신(mind) 속에서 작용하는 지각’²⁶⁾으로 정의하면서 의식 개념을 처음으로 명시적으로 또 일관성 있게 사용하기 시작한 이후에도 여전히 두 개념 사이에는 메워지지 않는 편차가 존재한다. 정신 현상에 있어서 의식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의식의 지향성에 대한 연구를 선도한 존

25) Aristoteles, *De Anima*, 414b.

26) John Lock, *An Essay Concerning Human Understanding*(1690), ed. John W. Yolton, London, Dent, 1976, p. 42.

쉴은 『의식의 재발견』에서 의식에 관한 전통적인 세 가지 오류로 모든 의식적 상태들은 자기의식적이라는 자기의식(self-consciousness), 의식은 특별한 내성 능력에 의해 인식된다는 내성주의(introspectionism), 우리 자신의 의식 상태에 대한 지식은 오류를 범할 수 없다는 교정불가능성(incorrigibility) 등을 꼽으면서 이 모두가 데카르트적 전통에서 유래한 것으로 진단한다.²⁷⁾ 특히 책 전반에 걸쳐 다양한 데카르트적인 말투(Cartesian shibboleths)를 극복하고자 노력하면서 의식의 구조적 특징으로 12 가지를 들고 있다. 그 중에서 마지막 12번째가 쾌·불쾌의 차원인데, 이에 다시 다양한 의식의 상태가 있으며, 그 중의 하나가 고통이다.²⁸⁾ 이는 싱어가 말한 감응력을 지닌 존재들의 반응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동물을 포함한 의식적 존재들은,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모두가 고통만이 아니라 이 같은 상태들을 경험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아리스토텔레스는 의식과 영혼(정신)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지 않지만, 싱어의 구분에 따를 경우, 의식을 어떤 영혼은 갖고 다른 영혼은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또한 인간이 갖는 의식적 능력을 동물의 그것과 견주어 전혀 다른 차원의 고등한 능력으로 차별화했다. 그러면서 동시에 싱어처럼 동물과 식물을 구별할 수 있는 존재 특성을 감각에 두고 있다. 앞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설명으로 돌아가 보면, 그는 영혼을 갖는 것과 영혼을 갖지 않는 것의 구분으로서의 두 가지 차이점을 “운동과 감각 29)으로 이해한 전통적인 견해를 비판하면서, 여러 곳에서 반복적으로 “식물들은 아무런 감각도 갖지 않는다. 30)고 말하고

27) John R. Searle, *The Rediscovery of the Mind*, the MIT Press, 1992, pp. 141-149.

28) John R. Searle, *The Rediscovery of the Mind*, p. 141. 고통 이외의 다른 경우로는 재미, 즐거움, 성냄, 숙태움, 흥겨워함, 지루해함, 황홀함, 메스꺼움, 욕지기남, 열성적임, 공포스러워함, 싫증남, 매혹됨, 행복함, 불행함 등이 있다. 그리고 그 밖에 이 쾌·불쾌의 차원에는 많은 하위의 차원들이 또 있다. 심지어 쉴은 성적 희열을 느끼면서도 지루함을 느낄 수 있으며, 신체적 고통을 느끼면서 몹시 즐거움을 느끼는 경우도 들고 있다.

29) Aristoteles, *De Anima*, 403b.

있다. 또한 “식물들이 영혼의 일부분을 가지고, 또한 촉각 대상들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왜 감각하지 않는가 하는 것이 분명해진다. 31)고, 즉 동물 혹은 인간이 갖고 있는 의식을 갖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그는 감각은 “움직여지고 영향 받는데서 발생하며 32) 또 감각의 특성을 “일종의 영향 받음 33)으로 규정하면서도 식물의 다른 대상으로부터의 “영향 받음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식물은 동물이나 인간과 달리 “감각능력으로부터 분리되어 존재한다고 단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아리스토텔레스 스스로 “운동은 어떤 것을 추구하거나 어떤 것을 회피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일 어떤 존재가 “무언가를 향해 뻗치거나 회피하는 경우 식물들도 운동할 수 있으며, 그런 운동을 위한 어떤 기관을 가질 것이라고 보면서, 이 같은 특징을 단지 동물의 의식을 설명하기 위한 논거로 삼아 논의를 전개하고 있을 뿐이다. 심지어는 동물들이 갖는 “생식을 하며, 또한 성숙해지고 쇠퇴한다는 34) 특성까지도 식물과의 차이를 옹호하는 증거로 삼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좀 더 살펴보아야 할 문제는 식물의 존재 특성과 관련해 의식과 감각 그리고 고통 사이의 연관성이며, 이로부터 당연히 물어야 할 것은 도덕적 고려의 기준으로서 고통이 갖는 당위성 여부이다. 의식 또는 감각이 있다면 이를 전제 조건으로 하는 고통지각은 한 존재가 고통을 느끼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를 그것에게 하는 어떤 능력들, 이를테면 능동적인 감각능력, 욕구능력, 혹은 장소이동능력이나 사고능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지 그 역은 아니다. 따라서 만일 식물이 어떤 능력을 갖고 있어서 그로부터 특정한 반응을 보인다면, 다른 아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식물 역시 같은 의미에서 특별한 존재로 평가받을 자격을 갖는다. 역시 동일한 논리로 통상 인간

30) Aristoteles, *De Anima*, 435b.

31) Aristoteles, *De Anima*, 424a-424b.

32) Aristoteles, *De Anima*, 416b.

33) Aristoteles, *De Anima*, 424a.

34) Aristoteles, *De Anima*, 432b.

과 동물의 도덕적 차이를 불식시키려는 경우 강조하는 바와 같이 인간과 동물의 고통지각의 유사성에 비하면, 동물과 식물의 진화계통수의 역사 또는 외적 환경에서 주어지는 자극이나 반응 양태에 있어서 동물과 식물의 반응 메커니즘 사이에는 메울 수 없는 차이와 간극이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그것이 그저 차이일 뿐 그것만으로 동물과 식물에 대한 도덕적 차별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우리가 한 종이 진화해온 역사에 가치론적 내지는 윤리적 잣대를 들이댈 수 없다면, 특정한 종이 특정한 능력이나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 그들을 차별할 정당한 근거와 이유가 될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의식을 갖는다는 것과 감각을 갖는다는 것, 즉 의식과 감각의 관련성에 있어서 싱어가 당연시 하듯이 감각을 갖기 위해서는 의식 또한 가져야 하는지 살펴보자. 데카르트적 전통에서 보면, 의식과 감각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데카르트는 의식과 감각 각각의 기능을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먼저 감각(sensation)의 경우, 하나는 자극이 신경을 통해 뇌에 전달되는 물질적 과정을, 다른 하나는 물질적 과정과 결합되어 있는 인지상태(awareness)를 가리킨다.³⁵⁾ 이 후자는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라고 말할 때의 ‘나는 생각한다’와 같은 기능을 하는 감각이다. 그리고 이는 넓은 의미에서 단순히 우리가 어떤 대상을 또는 내가 무엇을 보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는 그런 상태를 이른다. 이 경우 생각한다든 것과 의식한다는 것은 같은 의미이다. 따라서 이런 의미의 감각은 데카르트에게 의지, 지성, 상상력 등을 포함하는 사유(thought) 행위에 포함되며, 이 경우 감각 있음과 의식 있음은 동일한 내포와 외연을 갖게 된다. 그런데 데카르트는 감각의 이러한 두 가지 의미 중에서 후자의 감각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 의식과는 구별되는 의식, 즉 내가 지금 무엇을 단순히 의식하고 있다는 것을 넘어서 그러한 상태 자체를 의식하는 능력, 다시 말해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는 사유 능력으로서 일체의 신체적 과정으로부터 독립해 있는 의식의 존재를 주장한다.³⁶⁾ 이

35) Daisie and Radner Radner, *Animal Consciousness*, p. 22.

의식이 바로 자의식 또는 자기의식이다. 필자는 논지를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해 데카르트의 견해에서 단순한 물질적 과정에 불과한 감각을 물리적 감각으로, 인지상태에 있는 감각적 지각과 동일시 될 수 있는 의식의 상태를 경험적 의식, 그리고 일체의 감각적 연관 내지는 물리적 감각으로부터 독립해 있는 능력을 순수 의식이라 부를 것이다. 결국 데카르트에 따르면, 경험적 의식 혹은 우리가 의식적 존재라고 규정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의 의식은 한편으로는 데카르트가 말하는 기계적-물리적 과정일 뿐인 물리적 감각, 다른 한편으로는 순수 의식, 이 두 요소의 결합의 산물이다. 후자가 없으면 소위 인간적 감각 내지는 (경험적) 의식은 존재하지 않는 환상이다.

의식과 사유의 관계, 또는 영혼(mind) 또는 정신과 의식의 관계가 정확히 무엇인지, ‘생각하는 자아’와 같은 실체를 인식하는 능력인 순수 사유의 존재를 증명하는데 성공했는지 등을 둘러싼 문제들을 떠나서,³⁷⁾ 데카르트가 말한 의식과 감각의 관계에서 싱어와 아리스토텔레스와는 다른 경우, 이른바 전통적 의미에서 존재의 등급에 관한 인간중심적 사고의 전형을 만나게 된다. 데카르트는 사유 능력(의식)을 갖기 위한 필연적 조건으로서 순수한 사유능력 즉 순수 의식의 능력인 이성을 들고 있는데, 그에게 있어서 이런 의미의 순수 의식은 경험적 의식의 가능 근거이다. 이 순수 의식이 가능하지 않으면 경험적 의식도 불가능하다. 데카르트는 동물이 의식적 존재일 수조차 없는 이유는 이 같은 순수 사유능력을 결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³⁸⁾ 즉, 어떤 존재가 의식적 존재임은 그 존재가 자의식과 같은 순수 사유능력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 같은 맥락에서 데카르트에게 넓은 의미에서 경험적 의식 행위에 포함되

36) R. Descartes, *The Philosophical Writings of Descartes*, trans. J. Cottingham, R. Stoothoff, D. Murdoch, 2 vol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4-5, vol. I, p. 195

37) Radner Daisie와 Michael Radner는 데카르트가 이를 입증하는데 명백히 실패했다고 주장한다. Daisie and Michael Radner, *Animal Consciousness*, p. 67 이하.

38) Daisie and Radner Radner, *Animal Consciousness*, pp. 57-58.

는 이해함, 의욕함, 상상함, 감각적 지각과 같은 행위들은 모두가 순수 의식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사유 행위들이다.³⁹⁾ 그리고 감각적 특성도 그것이 의식(영혼)이 신체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사유하는 의식의 특성을 가지며, 따라서 감각적 지각작용 또한 의식적 행위로서 순수 의식을 전제한다. 다시 말해 영혼과 신체의 결합을 통해서만 지각 가능한 감각은 발생하며, 가령 의식과 독립해 있거나 의식이 개입하지 않는 한 어떤 존재가 감각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결코 지각 가능한 감각이 아니다. 그때의 감각은 그저 물리적 감각으로서 기계적 과정일 뿐이다. 데카르트는 고통과 같은 정념 또한 당연히 같은 방식으로 이해한다.⁴⁰⁾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의식과 분리된 신체의 물리적 감각작용은 그저 단순한 기계적-물리적 과정에 불과한 것이며, 데카르트는 동물을 다름 아닌 그 같은 물리적 감각 덩어리로 만들어진 존재, 즉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동물 기계(animal machine)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싱어의 입장과 관련해서도 자의식을 갖는 인간과 동물의 경우에 이들이 과연 정확히 순수한 사유 능력을 갖는지, 또 갖는다면 인간을 제외할 여타의 동물의 사유 능력은 인간의 그것과 어느 정도의 질적인 차이를 갖는지는 정확히 말하기 어렵다. 싱어는 동물도 자의식을 갖는다는 점을 들어 이 같은 능력에 근거해서 인간과 동물의 차별적 대우를 반대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반대로 인간과 같은 존재가 갖고 있는 자의식이 정말로 한 존재를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고유한 능력이며, 다른 동물과 다른 수준에서 도덕적 존재로서의 위상을 갖는다면, 그 같은 차별의 정당성을 고통이 아닌 자의식이나 순수 사유 능력에 두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는지 반문할 수 있다. 인간의 고통이 동물과는 다른 차원을 갖는다고 하는 이유들의 유력한 근거도 이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은가? 데카르트의 논증이 함의하듯이 자의식적 사유 능력이 인간만의 고유한 능력이라는 것이 참이라면 동물은 의식적 존재조차도 아니다. 우리가 동물의 고통을

39) R. Descartes, *The Philosophical Writings of Descartes*, vol. II, p. 113, 124.

40) R. Descartes, *The Philosophical Writings of Descartes*, vol. II, p. 32.

말하는 것은 싱어의 경우처럼 그들의 고통이 행동학적으로 우리의 그것과 너무 유사하기 때문에 범하게 되는 착각일 수도 있다. 이 같은 있을 수 있는 인간중심주의적 해석의 한계에도 불구하고⁴¹⁾ 싱어는 동물이 고통을 지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데카르트와 똑같은 이유에서 인간과 동물은 평등하다는 결론을 고수할 것이다. 하지만 이에 따를 경우 도덕적 고려의 범위는 상당히 축소되어 자의식적 존재만으로 한정될 것이다.

인간을 제외한 생명체들은 신체가 의식(영혼)과 결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고통을 지각하지 못하는 단순한 기계적·물리적 존재들에 불과하다는 데카르트의 논변, 즉 의식과 감각의 관계에 대한 해명으로부터 우리는 그의 의도와는 정반대의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데, 만일 어떤 존재가 고통 또는 그 밖의 확실한 감각적 지각을 갖는다면 그 존재는 자의식적 존재이거나 아니면 최소한 의식적 존재이어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이는 싱어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즉, 식물도 동물처럼 감각적 지각을 갖는다면 식물 역시 동일한 이유에서 의식적 존재로 보아야 한다는 결론이 그것이다.

5. 식물의 감각과 의식

비록 고통 감각이 인간과 동물을 평등한 존재로 분류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 하더라도 실제로 양자 간에는 단순화 시킬 수 없는 다양한 감각들이 존재한다. 이를테면,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등의 오감을 비롯해 통각과 운동감각, 평형감각, 압각, 온각, 냉각, 그리고 장기감각, 내장통각 등의 감각을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특히 하등 동물들과 비교할 때 인간의 감각 기능은 다양하게 분화되고 분절화된 동시에 이러한 것들이 통합되고 중심화되어 있다.⁴²⁾ 이 같은 차이를 낳는 원인은 그것이 명

41) M. Midgley, *Animals and Why They Matter*, Athens: The University of Georgia Press, 1983, pp. 141-142.

42) 나카무라 유지로, 『공통감각론』, 양일모·고동호 옮김, 민음사, 2003, pp. 94-95.

백히 인간의 뇌의 기능과 특성과 결합되어 있는데, 고등 동물들은 또한 분명히 상당 부분 인간의 이런 기능과 유사성을 갖는다. 그리고 감각이 분절화되고 동시에 중심화된 존재일수록 고통의 지각과 강도는 이에 비례해서 훨씬 커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현상에 대한 해석과 평가는 관점에 따라 달라진다.

어떤 사람들은 동물이 보이는 특정한 능력, 이를테면 먹이 습득에 있어서의 민첩성, 예민성, 과단성 등을 예로 들며 심지어 동물이 인간보다 우월한 존재일 수도 있다고, 그리고 이로부터 동물에 대한 차별적 대우는 인간중심주의적 편견의 산물이라고 강변하기도 한다. 이 같은 점이 사실이라면 어떤 식물은 동물들보다 훨씬 더 우월한 존재다. 물질대사의 경우 동물이 위에 들어온 음식물을 화학적인 물질대사를 통해 영양분을 흡수하기 이전에 먼저 입안에서 예비적인 소화활동을 하는 것에 비하면 식물은 자신이 용해할 수 있는 영양분만을 선별적으로 그리고 삼투압의 방식으로 직접적으로 섭취한다는 점에서 훨씬 더 큰 효율성과 우월성을 갖는다고 말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식물은 광합성을 하며 이에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뿌리를 통한 지속적인 양분 조달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오히려 동물과 인간의 생명을 특징짓는 “운동의 필연성에서 해방되었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⁴³⁾ 또 식물과 동물을 가르는 하나의 기준이 되는 운동(장소이동) 감각이 특별히 동물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들은 식물처럼 제자리에 앉아서 먹이를 습득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신 광합성을 하는 식물은 뿌리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아름다운 색깔과 모양과 향기를 이용해 동물들에게 자기 대신 돌아다니게 만든다.⁴⁴⁾ 심지어 나무들이 인간과 동물의 삶에서 차지하는 절대적인 영향력과 대부분의 생물체들과의 관계에서 그들이 갖는 엄청난 가치들은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⁴⁵⁾ 싱어는 이에 대해서 우리의 지식과 자손들에게

43) H. Jonas, *Organismus und Freiheit*,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73, p. 158.

44) 리처드 도킨스, 『조상이야기 : 생명의 기원을 찾아서』, 이한음 옮김, 까치, 2005, p. 558.

물려주기 위해 보존해야 할 소중한 유산으로 봄으로써 그와 같은 존재들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웅색한 답변을 내놓고 있다.⁴⁶⁾ 하지만 이와 같은 문제들과 관련해서 이런 관점적 해석의 일방에 편승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으려면 싱어의 논증이 의존하고 있는 핵심 문제, 즉 어떤 감각 및 그에 따른 현상이 그 존재에게 있어서 어떤 기능을 하며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가능한 한 그 존재의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 가령, 앞서 식물의 대사활동에서 식물의 감각이 그녀의 존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묻는 것이 좋은 예가 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식물의 “운동과 감각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아마도 이를 장소이동능력을 지닌 동물의 행동을 통해서 이해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식물이 가진 종적 특성들을 고려해 보자. 식물은 다른 유기체처럼 자기실현적, 자발적이며, 또한 자가유지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또 중추신경체계를 지닌 동물들과는 다른 방식의 통합적 활동체계를 가진 존재이다.⁴⁷⁾ 다윈이 『식충 식물』(*Insectivorous plants*, 1875)에서 비너스파리잡이(Venus flytrap) 연구를 통해 자극에 대한 식물체의 반응을 자세히 서술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이후의 식물의 운동에 대한 연구들은 식물이 자극에 대한 반응, 즉 굴광성(phototropism), 굴중성(gravitropism), 굴촉성(thigmotropism) 등과 같은 행동을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에 따르면 식물의 성장반응과 활동, 특히 벌레잡이 식물인 미모사(*Mimosa pudica*)와 비너스파리잡이풀이 보이는 경축반응(Thigmonastic response) 메커니즘은 그녀가 운동 감각을 갖고 있다는 증거라 할 수 있다. 많은 소엽을 지닌 미모사는 소엽들 중 어떤 것을 만지거나 누르면 잎들이 거의 발작 증세를 일으키는 것처럼 갑자기 소엽이 포개지고 잎자

45) C. Tudge, *The Secret Life of Trees. How they live and why they matter*, Penguin Books, 2005, p. 5 이하.; H. Rolston III, “Respect for Life: Counting what Singer Finds of no Account”, pp. 252-253.

46) P. Singer, “A Response”, in Jamieson, D. (ed.), *Singer and his critics*, p. 332.

47) H. Rolston III, “Respect for Life: Counting what Singer Finds of no Account”, pp. 249-250.

루가 처지는 반응을 보이는데, 이는 동물이 뜯어먹지 못하게 하거나 무덤고 건조한 바람으로 인한 수분 손실을 막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비너스파리잡이풀의 톱니 모양의 잎은 휴식 상태일 때는 덮처럼 열려 있다가 곤충이 잎의 한 쪽에 있는 세 개의 작은 털 모양의 방아쇠를 자극하면 잎을 닫아 곤충을 잡아버린다. 그리고 덮이 작용하기 전에 두 개의 털이 계속해서 접촉을 받거나 하나의 털이 두 번 접촉을 받아야 방아쇠가 작동된다.⁴⁸⁾ 물론 아직 식물의 이 같은 감각 반응이 동물의 감각과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의 많은 연구 결과들에도 불구하고 정확히 단정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적어도 식물이 분명 어떤 감각을 갖고 있다면, 동물이 동물이기 위한 최소한의 존재 조건이 촉각을 갖는다는 것과 함께 “감각은 움직여지고 영향받는 데서 발생하며,⁴⁹⁾ “동물은 존재를 위해서가 아니라 복지를 위해서 [촉각 이외의] 다른 감각들도 갖는다.⁵⁰⁾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은 식물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 또 감응력에 기초한 고통만 도덕적 고려의 대상으로 삼는 싱어의 논변은 여타의 다른 감각이 그 감각을 갖고 있는 존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도 진지하게 고려해야만 한다. 비록 식물이 동물이 느끼는 것과 같은 고통은 느끼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곧 식물이 의식적 존재가 아니라는 것마저 배제하지는 못하며, 게다가 식물이 어떤 감각을 갖고 있다면, 그들 역시 의식적 존재라고 주장하는 것이 보다 더 타당한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그 같은 감각을 지닌 식물적 의식이 반드시 인간 혹은 동물의 의식과 같거나 유사해야 할 이유나 필요도 없다. 그리고 어떤 의식 내지는 마음이 그것과 다른 마음이나 의식을 도덕적 고려의 대상에서 배제해야 할 이유 또한 없어진다. 그러므로 싱어는 식물의 감각을 배제하는 고통 중심의 도덕적 기준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식물 또한 도덕적 고려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새로운 감각중심의 도덕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48) 로버트 A. 윌리스 외, 『생물학』, 이광웅 외 공역, 을유문화사, 1993, pp. 555-570.

49) Aristoteles, *De Anima*, 416b.

50) Aristoteles, *De Anima*, 435b.

6. 나가기

어떤 존재가 의식을 갖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동물의 의식이 인간의 그것과 동일한 성질의 것인지, 아니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만일 인간과 동물의 의식을 한 데 묶어 동물에게도 인간과 유사한 지위를 부여하려는 시도가 단순한 임의성에서 벗어나 도덕적 정당성을 가지려면, 이 같은 시도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된 식물의 도덕적 지위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단순히 육식의 비윤리성 혹은 채식의 정당성을 옹호하려는 의도 때문이라면 이 같은 태도는 마땅히 재고되어야 한다. 또한 우리의 음식문화에 있어서 채식이 도덕적 정당성을 갖는 행위라고 주장하려 할 경우, 만일 지금까지의 논의가 재고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면, 우리는 육식을 금하고 채식을 해야 할 이유를 다른 데에서 찾지 않으면 안 된다.

오늘날 우리는 인간중심주의의 역사적 무근거성과 편견, 나아가 그로 인한 갖가지 폐해들을 지적하고 이를 바로 잡으려는 많은 노력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기도 한다. 그러나 잊지 않아야 할 것은 만일 인간중심주의가 그릇된 윤리적 가치관이라면 동일한 이유에서 동물을 도덕적 고려의 대상에 포함시키고 채식이 올바른 음식문화라고 하는 주장 역시 그릇된 편견이다. 인간중심주의의 한계와 병폐로부터 벗어나서 탈인간중심주의로 나아가는 길이 설사 인간이 가야할 올바른 길이라 해서 그것이 동물중심주의로 귀결되어야 할 하등의 이유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비록 아직은 과학적으로 입증되었거나 신뢰할만한 근거를 갖는다고 말하긴 어렵지만, 소프라노 같은 여성의 고음을 접하면 춤추듯 움직이는 중국산 무초(蕪草)를 비롯해 식물이 기억을 포함해 동물의 신경조직과는 다른 방식의 정교한 감각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연구 결과 등 식물의 생명활동이 보여주는 다양한 지각 작용을 예상케 하는 사례들은 쉽게 접할 수 있다.

나에게는 어떤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나의 꿈을 실현하는 것이 무엇

보다도 중요한 삶의 목표라면, 또 동물에게는 그들이 끔찍이 싫어하는 고통을 피하며 한 동안 무사히 지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 식물에게는 어떤 삶이 가장 중요하며, 이를 위해 그녀는 현재 어떤 계획을 갖고 있을까! 만일 식물이 감각을 지닌 의식적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의식이 갖는 어떤 능력이나 속성의 차이를 식물을 차별하는 정당한 근거로 삼을 경우, 불행하게도 동일한 이유에서 인간과 동물의 의식의 어떤 차이를 근거로 양자를 차별하는 것 또한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이다.

(중앙대학교)

참고문헌

- 나카무라 유지로, 『공통감각론』, 양일모·고동호 옮김, 민음사, 2003.
- 리처드 도킨스, 『조상이야기 : 생명의 기원을 찾아서』, 이한음 옮김, 까치, 2005.
- 마크 롤랜즈, 『동물의 역습』, 윤영삼 옮김, 달팽이출판, 2004.
- 맹주만, 「피터 싱어와 윤리적 채식주의」, <철학탐구> 22집, 중앙철학연구소, 2007.
-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 『영혼에 관하여』, 유원기 역주, 궁리출판, 2001.
- _____, 『니코마코스 윤리학』, 최명관 옮김, 서광사, 1984.
- 앤드루 브룩·돈 로스 편저, 『다니엘 데넷』, 석봉래 옮김, 몸과마음, 2002.
- 에른스트 마이어, 『이것이 생물학이다』, 최재천 외 옮김, 몸과 마음, 2002.
- 윌리스, 로버트 A. 외, 『생물학』, 이광웅 외 공역, 을유문화사, 1993.
- 최훈, 「맹주만 교수는 피터 싱어의 윤리적 채식주의를 성공적으로 비판했는가?」, <철학탐구> 25집, 중앙철학연구소, 2009.
- 피터 싱어, 『실천 윤리학』, 황경식·김성동 옮김, 철학과 현실사, 1997.
- _____, 『동물 해방』, 김성한 옮김, 인간사랑, 1999.
- Aristotle, *The Nicomachean Ethics*, Translated and edited by Roger Crisp, Cambridge University 2000.
- Bentham, J., *Introduction to the Principles of Morals and Legislation*, ed. by J. H. Burns and H. L. A. Hart, Lonon and New York: Methuen, 1970.
- Clark, Stephen S. L., *The Moral Status of Animals*, Oxford: Clarendon, 1977.
- Descartes, R. *The Philosophical Writings of Descartes*, trans. J. Cottingham, R. Stoothoff, D. Murdoch, 2 vol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5.
- Jamieson, D. (ed.), *Singer and his critics*, Oxford: Blackwell, 1999.

- Jonas, H., *Organismus und Freiheit*,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73.
- Lock, J., *An Essay Concerning Human Understanding*(1690), ed. John W. Yolton, London, Dent, 1976.
- Midgley, M., *Animals and Why They Matter*, Athens: The University of Georgia Press, 1983.
- Radner, Daisie and Michael, *Animal Consciousness*, New York: Prometheus Books, 1996.
- Rolston III, H., "Respect for Life: Counting what Singer Finds of no Account, in Jamieson, D. (ed.), *Singer and his critics*, pp. 247-268.
- Searle, John R., *The Rediscovery of the Mind*, the MIT Press, 1992.
- Singer, P., *Practical Eth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nd ed., 1993.
- _____, *Writings on an Ethical Life*, New York: HarperCollins, 2000.
- _____, "A Response, in Jamieson, D. (ed.), *Singer and his critics*, pp. 269-2335.
- Tudge, C., *The Secret Life of Trees. How they live and why they matter*, Penguin Books, 2005.
- Wuketits, Franz M., *Biologie und Kausalit t. Biologische Ans tze zur Kausalit t, Determination und Freiheit*, Berlin und Hamburg: Paul Parey, 1981.
- Wuketits, Franz M., *Zustand und Bewußtsein. Leben als biophilosophische Synthese*, Hamburg: Hoffmann und Campe, 1985.

Animal Pain and Sensation of Plants

Joo-Man Maeng

Peter Singer as a preference utilitarian argues for vegetarian diets which is based on the principle of equal consideration of interests and sentience as the capacity to feel pleasure or pain. What is more, he maintains that if a being is able to feel pains, it does mean that he is a conscious being. Based on these reasons, he argue that the differences feeling pains in quantity between beings is justified the ways of treating them differently. Therefore, on top of that, although there is little possibility of finding out that a plant can feel pains, he say that if the plants were such a sentient being, we should treat her as a moral being. He added, although it is right, but if quantity which animal feels pains is very great small than human and animal's, vegetarian diets are still better than meat-eating.

In this paper I will try to show that Singer's argument is not valid. I will argue that Singer's argument can be justified what a being is a conscious being means what it is a sentient being, because his reasoning which is excluded his other sensations except pain-sensation is a kind of arbitrarily preferential considerations. Although a plant cannot feel something like animal's pain, it seems to me that such a state of plant do not mean she is not conscious, moreover if the plant has some sensations, it can be said that she is also a conscious being.

Key Words: animal, plant, consciousness, pain, sensation, self-conscious, conscious, nonconscious

동물의 고통과 식물의 감각 / 맹주만

맹주만 e-mail: maengjm@cau.ac.kr

투 고 일	2009년 10월 13일
심 사 일	2009년 11월 10일
게재확정	2009년 11월 13일